

# ‘이종범 넘었다’ KIA 김선빈, 타이거즈 최다 안타 새역사

KIA타이거즈 김선빈이 타이거즈 역사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19년 동안 팀을 지키며 이종범이 보유했던 프랜차이즈 최다 안타 기록을 넘어섰다.

김선빈은 지난달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기에 6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볼넷을 기록하며 팀의 10-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안타 두 개는 모두 역사였다. 먼저 6회말 1타점 적시타로 개인 통산 1797안타를 기록.

‘레전드’ 이종범이 보유했던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안타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어 8회말 중전 안타를 터뜨리며 통산 1798안타를 기록, 구단 새역사를 완성했다.

화순고를 졸업하고 2008년 2차 6라운드 43순위로 KIA에 입단한 김선빈은 어느덧 19번째 시즌을 맞았다. 그해 4월 2일 데뷔 첫 안타를 시작으로 꾸준히 안타를 쌓아왔고, 2010년 첫 100안타를 기록한 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시즌 연속 100안타를 달성했다.

특히 2017년에는 176안타와 타율 0.370으로 타격왕과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거머쥐며 리그 최고의 교타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기록 뒤에는 솔한 시련이 있었다. 반복된 하체 부상으로 제 기량을 펼치

지 못한 시즌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 속에 따가운 시선도 감내해야 했다.

이날 경기 후 만난 김선빈은 “기록을 세운 것만으로도 기분은 정말 좋다”면서도 “최다 안타를 달성하기까지 많이 힘들었다. 부상도 많았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답답하게 돌아왔다.

이번 기록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넘어선 대상이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기 때문이다.

김선빈은 “(이종범) 선배님이 일본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뛰셨다면 더 많은 안타를 기록하셨을 것이다. KIA라는 팀에서 선배님의 기록을 깬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묘하다”고 말했다.

1798개의 안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데뷔 첫 안타를 꼽았다. 그는 “프로 첫 안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상대 투수가 메이저리그 출신 김선우 선배였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웃었다.

올 시즌 성적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1일 경기 전 기준 76경기에서 타율 0.259를 기록 중인 김선빈은 겨우내 중

리 부상 재발을 막기 위해 10kg 이상 체중을 감량했고, 시즌 중에는 특별 타격훈련까지 자청했다.

김선빈은 “올해 성적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 위축되고, 안 풀리니까 과감한 플레이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팀에 도움이 되려면 특타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최다 안타를 넘어 이제는 타이거즈 최초의 2000안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김선빈의 시선은 기록보다 더 먼 곳을 향해 있다.

그는 “2000안타를 세운다는 생각보다는 오래 야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며 “한 팀에서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다. 감독님과 코치님, 프런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록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타이거즈 역사에 새로운 이름을 새긴 김선빈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이정표인 2000안타와 함께, 누구보다 오래 KIA의 유니폼을 입는 ‘원클럽맨’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선빈은 지난달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안타 신기록을 달성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 SOOP 수퍼스, 창단 첫 시즌 출항 준비 끝

### 선수·코칭스태프 구성 마쳐…전력 윤곽 완성 외인 오드리야나·아시아쿼터 이즈 쉬에 영입

여저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무리하며 창단 첫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출항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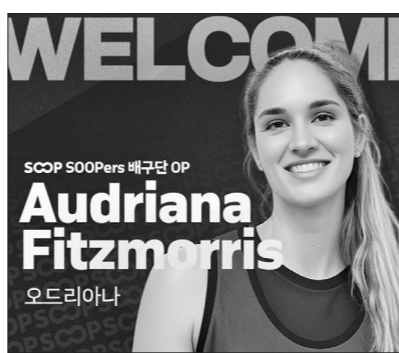
SOOP 수퍼스는 지난달 30일 한국배구연맹(KOVO) 선수 등록을 완료하며 2026-2027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시애틀을 인수한 SOOP은 KOVO 가입 승인과 김세진 감독 선임에 이어 선수 등록까지 마무리하며 창단 첫 시즌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등록 명단에는 아웃사이드히터 박은서·고예림·전하리, 미들블로커 임주은·박연화·김서영·하혜진, 세터 이원정·박시랑·박은서, 리베로 한다혜·정술민 등 국내 선수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고예림은 연봉 3억원·옵션 70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으로 여자부 보수 총액 10위에 올랐다. 앞서 SOOP은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박정아를 한국도로공사, 이한비를 현대건설로 보내며 전력을 정비했다.

외국인 선수 구성 또한 마쳤다. 외국인 트라이아웃 참가 선수인 미국·페루 이중국적의 아포짓스파이커 오드리야나 피츠모리스를 선발했고, 아시아쿼터로는 중국 출신 미들블로커 이즈 쉬에를 영입했다.

198cm의 큰 키를 갖춘 피츠모리스는 미국 스텔퍼드대 출신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리그와 미국 여자프로배구리그(LOVB)에서 활약한 공격수다. 높은 타점과 블로킹 능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는다.

이즈 쉬에는 미국 NCAA 롱비치스테이트를 거쳐 중국 베이징, 라오닝, 선전, 상하이 등에서 뛰었으며, 2022-2023시즌 중국리그 최우수 미들블로커에 선정된 바 있다. 192cm의 장신을 갖추고, 안정적인 블로킹과 속공 능력이 뛰어나다.

김세진 감독은 “오드리야나는 높이와 공격력은 물론 블로킹,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까지 갖춘 선수”라며 “새롭게



오드리야나 피츠모리스



아시아쿼터 이즈 쉬에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배구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판단했다. 국내 선수들과 좋은 호흡을 통해 팀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칭스태프 구성 역시 완료했다. 김세진 감독을 비롯해 현대캐피탈에서 수석코치와 감독대행을 지낸 진순기 수석코치, GS칼텍스와 IBK기업은행에서 지도 경험을 쌓은 김재훈 코치, 최근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함형진 코치가 합류했다. 전력분석과 트레이닝 스태프까지 구성된 SOOP은 조직력 강화와 추가 전력 보강을 병행하며 창단 첫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출된 아웃

사이드히터 전세안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안은 2025-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뒤 원소속팀과 최저 연봉으로 계약했다. 당시 원소속팀과의 합의 끝에 트레이드 혹은 방출 후 다른 팀과 계약하는 방안이 동의를 얻어 내려졌다. 선수 등록 마감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트레이드 대신 자유신선 선수 자격으로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전세안은 2019-2020시즌부터 2024-2025시즌까지 6시즌 연속 10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18경기 23득점에 그쳤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FC, 멀티 수비수 주앙 페드로 영입

### 유럽 1부 경험 앞세워 수비 안정·전술 다양성 기대

프로축구 광주FC가 유럽 무대 경험을 갖춘 브라질 출신 멀티 수비수 주앙 페드로(23)를 영입하며 수비진 보강에 나섰다.

광주는 1일 브라질 출신 원발 수비수 주앙 페드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후반기 전술 운용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03년생인 주앙 페드로는 브라질 아틀레치쿠 파라나엔시 유스에서 성장한 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포르투갈 1부리그 히우아브 FC와 폴란드 1부리그 라도미아크 라돔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 경험을 쌓았다. 브라질 연령별 대표팀에도 선발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수비 자원이자, 186cm의 원발잡이인 주앙 페드로는 왼쪽 풀백을 주 포지션으로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안정적인 포지셔닝과 후방 빌드업 능력은 물론 패스

와 드리블에도 강점을 갖춰 공수 연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경기 중 포메이션 변화나 전술 수렁에도 여러 포지션을 유연하게 소화할 수 있어 광주의 전술 활용도를 높여줄 카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 관계자는 “주앙 페드로는 희소성이 높은 원발 멀티 수비 자원으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 가치가 큰 선수”라며 “유럽 1부리그에서 쌓은 경험과 뛰어난 빌드업 능력으로 수비진에 안정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앙 페드로는 “광주의 일원이 돼 매우 기쁘다. 새로운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설렌다”며 “팀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광주팬들과 함께할 순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



## 조선대·광주여대·호남대, 대학배구 4강 ‘돌풍’

###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대회서 나란히 준결승행

광주 대학배구가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호남대학교 배구팀은 ‘2026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나란히 준결승에 진출했다.

남자대학부 조선대는 예선에서 목포대를 3-1로 꺾은 데 이어 경기대(3-2), 경일대(3-0), 성균관대(3-0)를 차례로 제압하며 4전 전승으로 A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대와의 홈세트 점전에서는 뛰어난 집중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며 우승 후보라는 면모를 보였다.

여자대학부 광주여대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지난달 30일 호남대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한 데 이어 1일 동의대마저 3-0으로 제압하며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호남대 역시 여자대학부 예선 첫 경기에서 동의대를 3-0으로 몰리치며 경쟁력을 입증했고, 준결승 무대에 올라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특히 조선대와 광주여대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팀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전승을 기록하며 대회 2연패를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준결승은 2일 열린다. 조선대는 인하대



조선대 배구팀이 '2026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준결승에 진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와, 광주여대는 단국대와 각각 맞붙는다. 호남대는 우석대를 상대로 결승 진출을 노린다.

전갑주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세 대학이 전국대회에서 동시에 준결승에 오른 것은 지역 대학배구의 경

쟁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선수들이 끝까지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결승 진출과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길 바라며, 광주시체육회도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FC, 여름 MD·응원 머플러 출시

### 온라인·플래그십 스토어 판매

프로축구 광주FC가 하반기 시즌 재개를 앞두고 팬들의 응원 열기를 더욱 끌어올릴 여름 MD와 신규 응원 머플러를 선보인다.

광주는 2일 오전 11시부터 구단 공식 온라인스토어와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여름 시즌 한정 MD 4종과 응원 머플러 2종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여름 MD는 튜브 키링, 아크릴 스피너, 아크릴 스피너, 아크릴 스피너 등 총 4종을

로 구성됐다. 튜브와 물놀이 디자인을 적용해 청량한 분위기를 담았으며, 구단 마스코트와 아이덴티티를 녹여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클타월과 포켓부채는 무더운 날씨 속 경기장을 찾는 팬들의 편의를 고려해 실용성을 높였고, 아크릴 스피너 그림책과 튜브 키링은 여름 감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를 더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